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에 최선”

강기정 시장, 기아 오토랜드광주서 50만대 생산 축하
현장 노동자 격려·지원 방안 모색…정책 과제 공유도

광주시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찾아 3년 연속 연간 자동차 생산 50만대 달성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14일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최근 3년 연속 연간 50만대 이상 생산 기록을 이어가며 지역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안정적인 생산 실적을 이어온 현장의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미래차 중심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문제제 공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완성차 산업 현안과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연간 52만대 생산을 이끈 현장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을 달성한 것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부강한 광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산업 기반이자 미래차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완성차 생산 도시를 넘어 미래차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025년 한 해 동안 내수 17만3662대, 수출 34만8606대 등 총 52만2268대를 생산했다. 이는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스포티지 (22만5933대)와 셀토스 (15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기아 오토랜드광주를 방문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달성 성과를 축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9466대) 등 주력 차종의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데다, 첫 전용 전기차 EV5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점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생산량은 2023년 54만1100대, 2024년 51만3782대, 2025년 52만2268대로, 최근 3년 연속 50만대 이상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미래차 모빌리티 선도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새해부터 글로벌 광폭 행보

AI·로봇틱스 등 현재와 미래 영역 확인

중국·미국·인도 등 3국 방문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타진
생산 전략 점검…임직원 격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새해 초부터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3개국을 넘나들며 분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회장의 새해 강행군은 거대 경제 권이며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개국에서 모빌리티, 수소, 인공지능(AI), 로봇틱스 등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확인하고, 고객 중심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현대차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 회장이 올해 현대차그룹 신년회를 통해 “지속적인 체질 개선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산업과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며 “AI 등 산업의 변화가 큰 만큼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도 맥을 같이 한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급변하는 현지 시장을 직접 살폈다. 지난해 5월 상하이 모터쇼 참관 이후 8개월 만의 중국 방문이다.

대통령 국빈 방중을 계기로 9년 만에 다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

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정 회장은 모빌리티와 수소, 배터리, 테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우선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정위진 회장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와 관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어 중국 에너지 기업 시노페크의 허우지전 회장과 수소사업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내 기아 합작 파트너사인 위에다 그룹 장나이원 회장을 만나 지속적인 발전적 협력 관계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시장 판매 증대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현지에서 첫 전용 전기차 모델 ‘일렉시오’를 출시, 2030년까지 중국 내 전기차 라인업을 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중국 방문에 이어 지난 6~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및 가전 전시회 ‘CES 2026’를 참관했다. AI 및 로봇틱스 등 미래 영역의 변화를 파악한 것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의 최고경영자(CEO), 아카시 팔키랄라 켈컴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주요 경영인과 면담을 가졌다.

현대차그룹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CES에서 공개되며 큰 반향을 낳았고,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는 CES 2026 로봇틱스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AI와 로봇틱스 기술력이 주목을 받았다.

정 회장은 인도를 찾아 전역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공장 3곳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들 동안 인도 동남부에 위치한 현대차 첸나이 공장, 인도 중부의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 인도 중서부의 현대차 푸네공장을 차례로 찾아 현지 생산 판매 현황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살폈다.

세계 최대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약 20%의 점유율로 인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자동차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고, GM의 푸네공장을 인수해 지난해부터 소형 SUV 메뉴를 생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준공식을 갖고 생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17만대 생산규모로 시작해 2028년 총 25만대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정 회장은 기아 아난타푸르공장에서 기아의 생산 판매 전략을 점검했다. 13일에는 현대차 푸네공장에서 현대차의 전략차 생산거점으로 재탄생한 푸네공장이 인도 지역경제에 주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아 인도 아난타푸르공장 임직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한전, 글로벌 전력시장 진출 속도 낸다

미국 컬럼비아시와 배전망 기술협력 업무협약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전력 시장인 미국에 한국형 배전망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전력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한전은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시의회에서 정치·한전 안전영업배전망사업과 Daniel Rickenmann 컬럼비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전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선진 배전망 운영 기술을 미국 전력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과 에너지관리시스템(K-BEMS) 등 한전이 자체 보유한 핵심 기술의 미국 시장 기술 실증과 사업화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전과 컬럼비아시는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미국전력연구원(EPR),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USC) 등이 참여하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워킹그룹은 한전의 기술 역량을 집약한 ‘미국 맞춤형 배전망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고 컬럼비아시 전력망을 대상으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컬럼비아시는 오는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시의회에서 ‘배전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는 만큼, 노후 배전망의 운영 효율화와 분산 에너지 확대 대응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배전망 운영 기술을 적용, 전력망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또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미국 시장 진출의 첫 사례로 삼아 향후 미국 전력시장 전반으로 한국 배전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 장비·기술 수출을 넘어 현지화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K-Grid 해외진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Daniel Rickenmann 컬럼비아시장은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컬럼비아시의 전력 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교 한전 안전영업배전망사업장은 “한전의 독보적인 배전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기술력이 컬럼비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kw0918@gwangnam.co.kr

기아, 신형 셀토스 출시 앞두고 실차 체험 행사

홈페이지 ‘디 올 뉴 셀토스 얼리 체크인’ 이벤트 접수
광주 등 전국 주요 거점서 실차 공개…다양한 혜택도

기아가 ‘디 올 뉴 셀토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체험 행사인 ‘얼리 체크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차 공개 행사 ‘디 올 뉴 셀토스 익스클루시브 프리뷰’, 차량 예약 및 출고 고객 대상 혜택 등으로 구성된다.

‘익스클루시브 프리뷰’는 오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 기아360, EV 인플루언스, 그라운드 성수, 기아 인턴·광주·원주 플래그십스토어, 기아 전시장 등 전국 14개 기아 거점에서 사전 신청 고객과 동반 1인 등 총 8400명을 초청해 진행한다.

익스클루시브 프리뷰 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은 선택한 거점에서 실차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 도슨트의 차량 소개를 통해

디 올 뉴 셀토스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당일 차량을 예약한 후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디스플레이 테마’ 중 1종을 증정한다.

기아는 얼리 체크인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이 ‘디 올 뉴 셀토스’를 생애 첫 차로 출고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당 최대 2회 한도, 사고당 50만원 한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아 홈페이지 얼리 체크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얼리 체크인 이벤트에 응모한 이후 3월 31일까지 디 올 뉴 셀토스 계약을 완료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디 올 뉴 셀토스 데님 보스턴백’을 증정한다.

디 올 뉴 셀토스 얼리 체크인 이벤트는



14일부터 계약 개시일 전까지 기아 홈페이지 내 얼리 체크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차 공개 행사인 익스클루시브 프리뷰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기아 관계자는 “디 올 뉴 셀토스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더욱 풍요롭게 할 SUV”라며 “고객분들께서 이번 얼리 체크인 이벤트를 통해 새로워진 셀토스를 직접 경험하고, 특별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